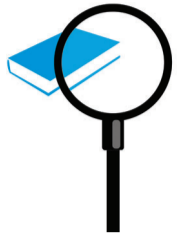


# K팝부터 K바이오까지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흔들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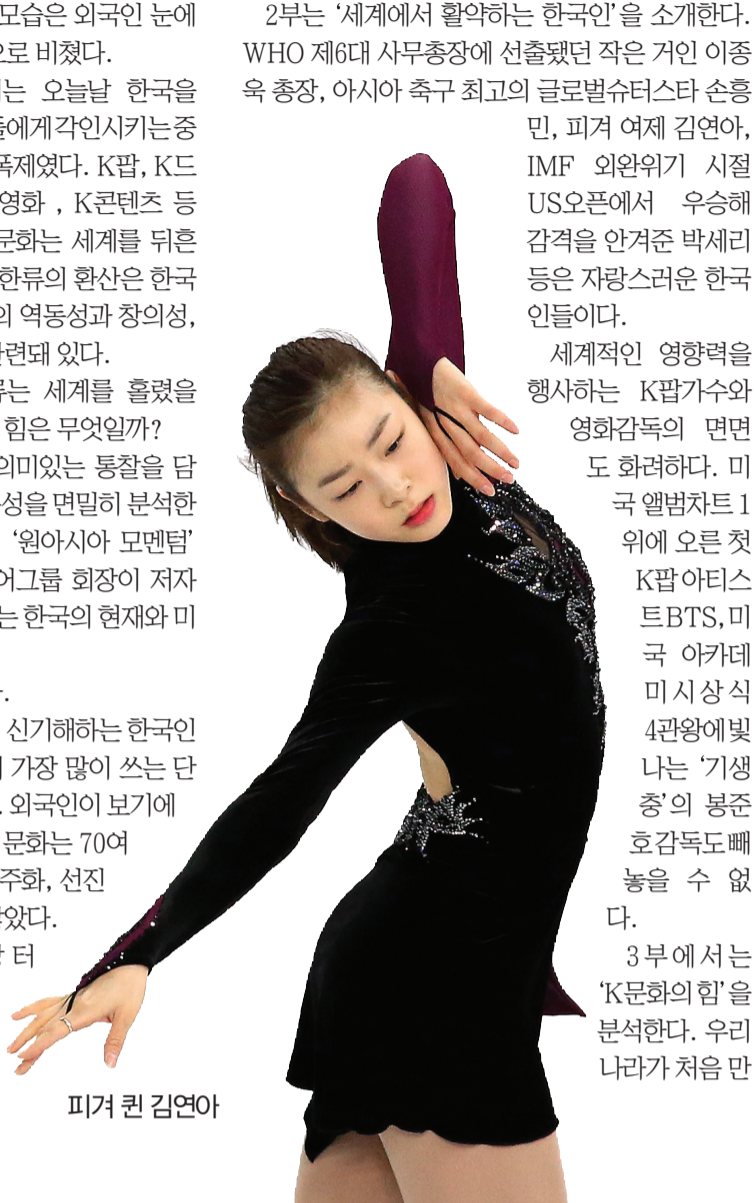
### K홀릭

장대한 지음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해외문화홍보원의 지난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이렇다. 당시 세계 24개 나라 만 16세 이상 1만2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에 대해 물었다. 80.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가운데 현대적인 문화가 22.9%로 가장 높았다. 제품·브랜드 13.2%, 경제 수준 10.2%, 문화유산 9.55, 국민성 8.6%, 사회시스템 7.8%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 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물건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고, 격식있는 식사 자리였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첫술을 뜨는지 확인하고 먹는 모습 등은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우리나라의 기본 예의범절이다. 최근에는 'K양식'으로 일컫는 수준 높은 시민의 식도 주목을 받았다. 카페에 지갑을 두고도 훔쳐가



지 않는 모습은 외국인 눈에 신기함으로 비쳤다. K컬처는 오늘날 한국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기폭제였다. K팝, K드라마, K영화, K콘텐츠 등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과 창의성, 끈기, 근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돼 있다. K팝부터 K바이오까지 한류는 세계를 흔들었을까?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 대한 흥미롭고 의미있는 통찰을 담은 '홀릭'은 한국인의 문화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다.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 '원아시아 모멘텀' 등의 저자인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저자다. 책을 통해 언론인이 제시하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앞서 언급한 '외국인이 신기해하는 한국인의 삶'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다. 외국인이 보기에 정신없어 보이지만 '빨리빨리' 문화는 70여 년 만에 극진국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룬 '한국의 기적'을 낳았다. 번개 배송 문화, 어디서나 뱅뱅 터지는 와이파이, 외국인의 로망이 된 K의료서비스는 대표 적인 예다.



피겨퀸 김연아

2부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을 소개한다. 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됐던 작은 거인 이종욱 총장, 아시아 축구 최고의 글로벌슈퍼스타 손흥민, 피겨 여제 김연아, IMF 외환위기 시절 US오픈에서 우승해 감격을 안겨준 박세리 등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K팝가수와 영화감독의 면면도 화려하다. 미국 앨범차트 1위에 오른 첫 K팝아티스트 BTS,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빼놓을 수 없다. 3부에서는 'K문화의 힘'을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처음 만



떨어진 지갑을 안 집어가는 한국인의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 신기함으로 비친다. <매일경제신문사 제공>

들어 대중화한 콘텐츠 포맷 웹툰을 비롯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태권도, 192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K여권의 파워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응용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4부는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주제다. KIST는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로 불릴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20년 연속 OECD 학업성취는 상위권이었다. 특히 읽기, 수학, 과학 부문에서는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과학올림피아드는 항상 상위권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5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K기업'을 조명한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수출 K방산을 비롯해 K반도체의 위엄, 중동아시아 랜드마크를 쌓아올린 K건설 등의 이야기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다. 한편 저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인으로부터,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로부터 '기적의 나라'로 평가받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습기

마태 지음



워킹맘 미연은 청야 당점으로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다. 기자인 남편 정우 사이에 초등생 아들 지호가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생활은 만만치 않다. 출근이 한 시간이나 걸리는 데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지호 등 미연은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 채팅방에 미연이 초대된다. 거기서 지호와 같은 반 친구 학부모 영희엄마와 인사를 나누게 된다. '달라구름 꿈 백화점'의 작가 이미에는 이 소설을 이렇게 평했다. "클라임팩트 이후에도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탄탄하게 쌓아 올린 구조가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라고. 바로 장르문학 IP 공모전: 리노블 시즌 1 대상을 수상한 마태 작가의 '습기'에 대한 평이다. 장르문학 전문 출판사 해피북스투유가 국내 웹툰 제작사 투유드림, CJ ENM, 밀리의 서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1억을 내건 데서 보듯 응모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총 3차에 걸친 심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습기'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저자인 마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어렸을 때처럼 음습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곤 했다. 결국 비수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쓰는 것이 목표가 됐다. '습기'에서 주인공 미연은 퇴근이 늦을 때마다 지호를 돌봐주는 영희엄마에게 점점 의절게 된다. 어느 날 새벽 미연 축하를 겪은 회식 때 아파트 인근에서 아동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된다. 기자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묻지만, 정우는 그저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해피북스투유·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최종규 지음·강우근 그림



"사물사람들이 말하는 '봄까지 꽃'은 '봄까지 피는 꽃'이라고 해서 우리 겨레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 꽃을 '개불알꽃'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요.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 무렵 일본 학자가 학술이름으로 '개불알꽃'이라는 꽃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봄날 어른들은 냉이국을 즐기고 썸바귀나 달래를 즐겨먹어요. 냉이도 썸바귀도 달래도 풀이예요. 풀을 캐서 먹어 적에는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밤에 씨앗을 심어 먹는 풀은 '남새'라고 했어요. 이 둘을 합쳐 '푸성귀'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채소나 야채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채소'는 남새를 가리키는 중국말이고, '야채'는 푸성귀를 가리키는 일본말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 '숲노래'를 꾸리면서 우리말살리기(한국말사전)를 짓고 있는 최종규가 이번에는 어린이와 생각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이야기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을 펴냈다. 온갖 지식과 정보를 모아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닌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어휘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이야기 하듯이 우리말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교과서를 읽거나 한글을 떼면서 말 배우기가 되지 않고 생각을 넓히고 습기를 빚낼 때 비로소 말 배우기가 된다고 말한다. 꽃, 나무, 날, 놀이 등 저자가 들려주는 24가지 주제의 우리말 이야기를 통해 우리말에 담긴 우리 겨레의 넋을 배울 수 있다. 혹은 도시 어린이들에게 어렵거나 힘들게 읽힐 수 있을까 염려되어 책 말미에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는 '책에 나온 251가지 낱말 뜻'을 헤아려보는 불림말을 넣었다. <침술외역회·1만5000원> /최수영외역회·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사물의 가부장제

레베카 엔들러 지음·이기숙 옮김



여성용 핑크색 정동 드릴을 본 적 있는가? 기능과 버튼이 풍부한 남성용에 비해 발매품 느낌이 그쳐 단출하기 가했다. 여성용 축구화는 또 어떠한가. 애초에 남성용에 비해 라인업이 부족할뿐더러 가격, 기능, 디자인 등도 천양치차로 열악하다. 이러한 물질들의 '실존'은 한편에서 여성이 뛰는 운동장을 좁혀온 것 같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물이 역사적으로 세계의 부조리를 견고하게 함을 들여다보는 책이 출간됐다. 레베카 엔들러가 펴낸 '사물의 가부장제'가 바로 그것. '세계는 왜 여성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제를 갖고 일원화된 물질 문명이 가부장제에 복무한다는 논지를 펴면서, 기존 유훈론이 갖는 허상을 밝힌다. "여성을 공략하는 열쇠는 아직도 변함없이 이것인 것 같다. '분홍색을 입혀라, 크기를 줄여라'. 오리지널보다 크기가 작고 색이 감미로운 모든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책에 따르면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은 당초 남성용을 상정하는 '오리지널'로 만들어졌다. 이를 다운사이징한 뒤 핑크 등을 가미한 물건이 여성에게 제공될 뿐인 것이다. 물론 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책은 여성이 진정으로 작고 핑크한 것을 좋아하기에 그런 물건들이 생산된 것인지 혹은 그 역순인지에 대해 생각해볼게 한다. 여성의 물건마저 오리지널의 어류로서 남성주의에 복무하고 있다는 발상은 가부장제의 의표를 찌른다. "세계는 왜 여성에게 맞지 않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 사변적 이론을 늘어놓지 않고 '포르노', '탈갈', '의약품', '비디오게임'과 같은 흥미롭고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서 남성에게도 '물질'과 '성'에 대한 성찰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그리나·2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90816-중-388919